

自縊死와 溺水死에 사용된 藥物分析 및 投與方法에 對한 文獻的 考察

安正祚 · 薛仁燦*

Abstract

Literatural Study on the herb med and the medication of Resuscitation(蘇生術) of Jayaeksa(自縊死) and Yiksusa(溺水死)

An Joung-jo, O.M.D., Seol In-chan, O.M.D., Ph.D.

Dep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In the literatural study on on the herb med and the medication of Resuscitation(蘇生術) of Jayaeksa(自縊死) and Yiksusa(溺水死),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s the single herb medication, gesim(桂心), sesin(細辛), johyub(皂莢), chongyub(葱葉), banha(半夏), yukge(肉桂) etc. were used.
2. The sǒng(性) of used medicines is mainly onsǒng(溫性) and yulsǒng(熱性), the mi(味) is sinmi(辛味).
3. The gwigyǒng(歸經) is all most simgyǒng(心經) and pyegyǒng(肺經).
4. The efficacy is geopung(祛風), geosub(祛濕) and geodam(祛痰)
5. On the method of herb medication, In Jayaeksa(自縊死), Chuibub(吹法), Guanbub(觀法) were most used, and In Yiksusa(溺水死), Guanbub(觀法) was most used.

I. 緒 論

최근 한방병원에서의 應急患者의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그 처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한방적 치료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있다. 현대사회의 산업발달과 교통수단의 복잡화와 고속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의 많은 연구와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1,2)}.

急症에서의 應急蘇生術은 迅速한 處置와 藥物投與가 要求되며, 이는 갑작스런 心臟停止와 呼吸停止時에 患者의 意識을 回復시키기 위한 醫學的 處置 및 方法 혹은 死亡에 이르렀을 때 다시 生命을 蘇生시키기 위한 救命處置術이다¹⁻⁵⁾. 韓醫學에서 蘇生術은 東漢時代의 《金匱要略》⁶⁾에서 自縊死와 溺水死에서 최초로 言及되었고, 점차 發展을 하였으나, 明·清代 이후에서는 古代 文獻을 踏襲하는 수준이었다.⁶⁻³⁰⁾ 蘇生術의 處置法인 氣道確保, 人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心系內科學教室

工呼吸, 心臟맞사지, 藥物 등에 대해서 技術되어 있으나 現代 韓醫學에서의 蘇生術에 대한 處置는 踏步한 상태이며, 西洋醫學에서의 應急蘇生術과의 技術的인 側面과 豫候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5,26,27,31,35,37,43)} 이에 著者는 自縊死와 溺死에 對의 應急處置에 따른 投與된 單方藥物에 대한 分析과 投與에 대한 各各의 方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을 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吹法

1) 華佗神醫秘傳⁹⁾

華佗救溺死神方 ; 以甕中灰布之 …… 然後以生半夏丸 納鼻孔中 必取嚏而蘇 急以人蔘三錢 茯苓一兩 白朮 薏仁 車前各五錢 肉桂 一錢 煎湯半盞灌之 無不生全也

2) 備急千金要方¹⁰⁾

又方 搗皂莢細辛屑如胡豆大吹兩鼻中

又方 葱葉吹皂莢末 兩鼻孔中 逆出更吹

又方 梁上塵如大豆 各內一小竹筒中 四人各捉一筒 同時吹兩耳兩鼻即活

3) 外臺秘要¹¹⁾

又方 皂莢末葱葉 吹其兩鼻孔中 逆出復內之 (千金偏急丈仲同)

又方 以蘆管吹其兩耳 極其易人吹取活乃止若氣通者以少桂湯 稍稍嚥之徐徐 乃以少粥清與之(并出第三卷中)

又方 梁上塵如大豆 各內一筒中四人 各一筒同時吹鼻中兩耳極力吹之即活

刪繁療五絕死方 一曰自縊 二曰牆壁所迮 三曰溺水 四曰魔魅 五曰產乳 皆取半夏一兩搗節吹一大豆內鼻孔中 即活 心下溫一日者亦可活

4) 太平聖惠方¹²⁾

治溺死諸方 …… 又方 又以甕中灰 布地令厚五寸 以甕則安着灰上 令溺人伏於甕上 使頭小垂下 抄鹽二錢 納小竹管內 吹入下部中 即當吐水 …… 即活矣

5) 聖濟總錄¹³⁾

治自縊死救急方 …… 又以梁上塵如豆大 各內一筒中 四人各一筒 同時吹鼻中 兩耳極力吹之 即活

又用皂莢末葱葉 吹兩鼻孔中 逆出復內之

治忽溺死者方 …… 又倒臥漑却水 便于肚上多著灰掩了 仍以皂莢末吹鼻中 即活

治溺死 鹽導得活方 …… 抄鹽二方寸匕 內管中 吹入口中 即當吐出水 乃去甕 下死人著灰中以壅身 勿令遮鼻口 即活

6) 丹溪心法附餘¹⁷⁾

半夏散 治魔寐卒死 諸暴絕證 用半夏不拘多少 湯洗七次 爲末 每用少許 吹入鼻中 心頭溫者 可治 ……

7) 本草綱目²⁰⁾

【縊死】

半夏 - 五絕死 但心頭溫者 以末吹鼻 皆可活

皂莢末 - 五節死者 吹其耳鼻

梁上塵 - 五絕死 吹耳鼻

【溺死】

皂莢 - 吹其耳鼻 及綿包納入下部 出水即活 梁塵亦可

8) 證治準繩²¹⁾

【自縊死】用火筒吹之 以半夏 皂角 搗鼻 以薑汁

9) 醫學心悟²⁴⁾

溺死者 …… 用半仙丸納入鼻中 或用搗鼻散吹之

10) 鄉藥集成方²⁶⁾

【千金方】목매어 죽게 된 상태를 치료하는 處方 : 皂莢 細辛 各 等分 以上을 가루 내어 소두만 한 양을 콧구멍에 넣어 넣는다

11) 東醫寶鑑²⁷⁾

【救自縊死】又取梁上塵 如大豆許 納竹管中四人 各一管 同時極力吹兩耳鼻中 即活 又取半夏末 或皂角末 或細辛末 吹入鼻中得嚏 …… <本草>

12) 醫宗損益²⁸⁾

自縊死 …… 又藍汁半夏 或皂角 或細辛末吹鼻得嚏即甦

13) 寄效良方²⁹⁾

治自縊死急中惡氣欲絕者 又用皂莢細辛 搗爲細末 吹兩鼻中

治自縊死方 又用梁上塵如豆大許 以小竹筒時吹兩

耳兩鼻 卽活

2. 灌法

1) 備急千金要方¹⁰⁾

又方 藍青汁灌之

又方 雞屎白以棗大酒半盞和灌口及鼻中佳

治落水死方 又方 倒懸死人 以好酒灌鼻中 右

灌下部 又酢灌鼻亦得

2) 外臺秘要¹¹⁾

千金療自縊死方 以藍青汁灌之 又極須安定身心

徐徐緩解慎 勿割繩抱 取心下猶溫者 刺雞冠血滴口中 卽活 男用雌雞 女用雄雞

又方 雞屎白以棗許 酒半盞和灌口鼻中卽活

溺死方九道 …… 又方 倒懸死人以好酒灌鼻中

入活

3) 太平聖惠方¹²⁾

治溺水諸方 …… 又方 右倒懸溺人 以好酒灌鼻

又灌下部

4) 聖濟總錄¹³⁾

治自縊死 酒灌之方 …… 又以雞屎白棗許大酒半盞和 灌之口鼻中 卽活

治自縊死方 …… 又以藍青汁灌之

治溺死 松油灌方 …… 又取松子油一盞 灌入口中卽活

治溺死 酒灌得活方 …… 又倒垂死人 以好酒灌鼻中 右灌下部 或以醋灌鼻中亦得

5) 醫學入門¹⁸⁾

救溺死 …… 內以鴨血로 灌之니라

6) 萬病回春¹⁹⁾

自縊死者 …… 一方雞屎白 如棗大酒半盞 到灌及鼻中尤妙

7) 萬病回春¹⁹⁾

自縊死者 …… 千金方 以藍汁灌之餘法同上

8) 本草綱目²⁰⁾

【縊死】藍汁 - 縊死 灌之

9) 證治準繩²¹⁾

【自縊死】仲景云 …… 又方雞屎白 如棗大酒半盞和灌及鼻中尤妙

【自縊死】調蘇合香丸灌之 或煎木香細辛湯 調灌

【自縊死】千金方 以藍汁灌之餘法同上

【溺水死】 …… 用皂角以生薑自然汁灌之上下

10) 醫學心悟²⁴⁾

溺死者 …… 仍以生薑自然汁灌之

11) 鄉藥集成方²⁶⁾

【千金方】 목매어 죽게 된 狀態를 치료하는 處方 : 藍汁을 입안에 떠 넣어 준다

12) 鄉藥集成方²⁶⁾

【千金方】 목매어 죽게 된 狀態를 치료하는 處方 : 鷄屎白 대추만한 양을 술 半盞에 풀어 입과 코에 부어 넣는 것이 좋다

溺死 상태가 하룻밤을 지난 경우에 치료하는 處方 : 식초 半盞을 코에 부어 넣는다

【肘後方】溺死 상태가 하루나 지난 경우에 치료하는 處方 : 물에 빠진 사람을 거꾸로 세우고 好酒를 코에 부어 넣어도 좋다고 하였다

【鄉藥易簡方】溺死 症狀를 치료하는 處方 : 松子油(갓기름) 1盞을 입에 떠 넣어 주면 곧바로 살아난다

13) 東醫寶鑑²⁷⁾

【救自縊死】自縊死者 …… ○又以藍汁灌之 …… <本草>

【救溺水死】凡溺水死者 …… 又取鴨血灌入口中

【救溺水死】凡溺水死者 …… 又將醋半盞灌鼻中

【救溺水死】凡溺水死者 …… 又用蘇合香元三丸薑湯調灌

【救溺水死】凡溺水死者 …… 又萬病解毒丹一錠冷水磨化灌下

14) 醫宗損益²⁸⁾

自縊死 …… 鷄屎白和酒灌鼻 藍汁灌梁上紳納竹管中四人欠

15) 寄效良方²⁹⁾

治自縊死方 又用雞屎白如棗大 酒半盞和 灌之口鼻中佳

治自縊死方 又以藍青汁灌之立活

治溺水死 又法倒垂死人 以好酒灌鼻中 及灌鼻部或醋灌鼻中亦得

治自縊死方 又屎灌鼻口眼耳中 并捉頭髮一撮如尿管大 掣之立活

16) 醫學綱目³⁰⁾

自縊死 …… 又方雞屎白如棗大 酒半盞 和灌及鼻

中尤妙

自縊死 …… 千金方 以藍汁灌之 餘法同上

3. 適法

1) 備急千金要方¹⁰⁾

又方 刺雞冠血滴口中即活 男雌女雄

2) 聖濟總錄¹³⁾

刺雞冠血 滴口中即活 男用雌雞 女用雄雞

3) 醫學入門¹⁸⁾

救縊死 又法 男用雌雞 女用雄雞冠을 刺血하

야 滴口中이면 即活하리라

4) 萬病回春¹⁹⁾

自縊死者 …… 刺雞冠血 滴口中即活 男用雌

女用雄

5) 本草綱目²⁰⁾

【縊死】雞冠血 - 縊死者 徐徐抱住 解繩 不得 割斷 安脚臥之 緊挽其髮 一人摩其胸脇 一人屈其臂 及足經 待其氣回 刺血滴入口中 即活 或桂湯亦可

6) 證治準繩²¹⁾

【自縊死】仲景云…… 須抱取心下猶溫者 刺雞冠 血滴口中 即活 男雌女雄

7) 醫方集解²²⁾

〈縊死〉 …… 或刺雞冠熱血滴口中

8) 鄉藥集成方²⁶⁾

목매어 죽은 듯한 狀態(自縊)

【肘後方】목매어 죽게 되었을 때에는 목맨 줄 을 끊지 말고 천천히 풀어서 눕히고 아직 명치 부 위가 따뜻하면 닭뿔 피(男子는 닭뿔, 女子는 수뿔) 를 입안에 떨어뜨려 넣으면 곧바로 살아난다

9) 東醫寶鑑²⁷⁾

【救自縊死】自縊死者 …… ○急刺雞冠血滴口中 即活 男雌女雄 又取雞屎白 如大酒和灌鼻中 尤妙< 本草>

10) 醫宗損益²⁸⁾

自縊死 仲景曰 …… 本草雞冠血滴口中則活

11) 寄效良方²⁹⁾

治自縊死方 又刺雞冠血出 滴著口中即活 男用雌 女用雄者 塗喉下

4. 喉下

1) 備急千金要方¹⁰⁾

又方 雞血塗喉下

5. 口內法

1) 外臺秘要¹¹⁾

又方 以松子油內口中 令得入咽中則便活

2) 聖濟總錄¹³⁾

治自縊松子油方 …… 又以松子油 內口中 令 得入咽中便活

治溺死 葱汁導水方 …… 又取不蛀皂莢 搗羅 爲細末 以葱白研絞取汁 和丸如棗核大 內下部中 效

治溺死 導水方 …… 又如經宿 取皂莢搗羅爲 末 以棗糰爲丸 如彈子大 內下部中 水即出

3) 寄效良方²⁹⁾

治自縊死方 又松子油 內口中 令得入咽中便活 急 治溺死

治溺水葱汁導水法 又取不蛀皂角爲細末 以葱白汁 或棗糰和丸 如棗核大 內下部中 其水自出矣

6. 含法

1) 金匱要略⁶⁾

救自縊死 …… 可少桂心湯及粥清 含與之 令 濡喉 漸漸能嚥 乃稍止 ……

2) 華佗神醫秘傳⁸⁾

華佗 救縊死神方 ; 凡自縊死 …… 或以山羊 血 菖蒲 蘇葉各二錢 人蔘 半夏各三錢 紅花 皂角刺 麝香各一錢各爲末蜜丸 如龍眼核大 酒化開即以人口 含藥水 用葱管送入死人喉內 少頃即活 此丸神效之 極 唯修合之時 以端午日爲佳

3) 外臺秘要¹¹⁾

仲景云 自縊死 …… 令可少桂心湯及粥清 含 與之

4) 聖濟總錄¹³⁾

〈辨自縊死解繩法〉法自縊 …… 須以少桂心 湯 及粥清 含與之 才令濡喉 漸漸能嚥 乃稍止耳 兼 令兩人各以管吹其兩耳 彌好 此最善 無不活者

5) 三因方¹⁴⁾

救自縊法 …… 須與可以少桂湯及粥清含與之 ……

6) 仁齋直指方¹⁵⁾
自縊法 凡自縊高懸者 …… 須臾 以少桂湯及
粥清灌令喉潤 漸漸能咽乃止 ……

7) 得效方¹⁶⁾
救自縊法 …… 須臾以少桂湯 急粥清灌令喉潤
漸漸能嚥乃止 ……

8) 丹溪心法附餘¹⁷⁾
凡自縊高懸者 …… 須臾以少桂湯及粥清 灌令
喉潤 漸漸能嚥 乃止 ……

9) 證治準繩²¹⁾
【自縊死】仲景云 …… 可少與桂湯及粥清 含與
之

10) 醫宗金鑑²⁵⁾
救自縊死 …… 須臾可少桂湯及粥清含之 ……

11) 醫學綱目³⁰⁾
自縊死者 …… 須臾可少與桂湯及粥清與含之
……

7. 綿裹法
1) 外臺秘要¹¹⁾
溺死方九道 …… 肘後療溺死一宿者 尙可活方
以皂莢末綿裹內下部中 須臾出水卽活

2) 太平聖惠方¹²⁾
治溺水諸方 ……又方 又綿裹皂莢 納下部中
須臾水出

治溺水諸方 ……又方 又綿裹石灰 納下部中
水盡卽活

3) 聖濟總錄¹³⁾
治溺水死 導水方 …… 又取皂莢末 水丸如胡
桃大 綿裹內下部中 伏面向下 須臾水從鼻口中出 仍
多取灰復借 水盡卽活

4) 得效方¹⁶⁾
又方失足溺死 一宿尙可救 搗皂角以綿裹納下
部 須臾出水卽活 又將醋半盞灌鼻中

5) 醫學入門¹⁸⁾
救溺死方 …… 又方溺水死者 過一宿尙活 搗
皂角爲末綿裹納下部 須臾 出水卽活

6) 證治準繩²¹⁾
金匱救溺死方 …… 又方溺水死一宿者 尙活搗皂
角綿裹納下部 須臾更出水卽活

7) 醫方集解²²⁾
〈溺死〉 …… 或用皂角末綿裹納下部 出水卽活
〈縊死〉 ……急令手裹衣物緊塞穀道

8) 東醫寶鑑²⁷⁾
【救溺水死】凡溺水死者 …… 又取皂角末綿 納
下部 須臾出水卽活

9) 醫宗損益²⁸⁾
溺水死 入門 …… 皂角末綿裹納下卽演入出水卽
活

10) 醫學綱目³⁰⁾
溺水者 …… 又方溺水死者 一宿尙活 搗皂角綿裹
納下部 須臾 出水卽活

8. 擦法
1) 得效方¹⁶⁾
救溺水 又法 凡人溺水者 …… 如醒 卽以蘇合
香圓之類 或老薑擦牙

2) 丹溪心法附餘¹⁷⁾
救溺水法 凡人溺水者 …… 如醒 以蘇合香丸
之類 或老薑擦牙 ……

3) 醫學入門¹⁸⁾
又法은 …… 如甦어던 卽用蘇合香丸으로 搗
牙니라

4) 本草綱目²⁰⁾
【溺死】老薑 - 溺死人橫安牛背上 扶定 牽牛徐
行 出水後 以薑擦牙

5) 證治準繩²¹⁾
【溺水死】 …… 以炒薑擦之

6) 醫方集解²²⁾
〈溺死〉 急倒提出水 …… 以老薑擦牙卽活

7) 鄉藥集成方²⁶⁾
卒溺死 : 【得效方】 물에 빠진 사람을 소 등에
가로로 얹드려 놓고 소를 천천히 걷게 하면 뱃 속
의 물을 토하게 되고 곧 깨어난다 이때 齒牙에 老
薑을 문질러 준다

9. 搗鼻法
1) 醫方集解²²⁾
〈縊死〉 …… 或以皂角末搗鼻

10. 納鼻法

1) 醫學心得²⁴⁾

溺死者 …… 半仙丸 半夏爲末 水丸如黃豆大 每用一丸納鼻中 男左女右

自縊者 …… 然後以半仙丸納鼻孔中

2) 備急千金要方¹⁰⁾

治落水死方 又方 綿裹皂莢內下部中 須與水出

III. 考 察

韓醫學에서 自縊死⁶⁾는 목을 메어 死亡한 것을 말하며, 溺水死⁶⁾는 물에 빠져 死亡하는 것으로 한 방에서 應急蘇生術을 시행했던 응급상황이다⁴¹⁾.

自縊死와 溺水死에서는 吹法, 灌法, 滴法, 搐鼻法 擦法, 綿裹法, 喉下 및 口內法의 消化管 投與의 方法이 대부분 舌下投與와 經口投與로 이루어지며 直腸管投與는 적은 편이다. 使用된 藥物로는 皂莢, 桂心(少桂), 細辛, 藍汁, 鷄冠血, 梁上塵, 鷄血, 葱葉(心), 松子油, 鷄屎白, 半夏, 皂角, 肉桂, 屎, 酒, 酢(醋), 石灰(籠灰), 炒鹽, 老薑(生薑), 鴨血 등이 있으며, 주로 液體나 固體의 粉末형태로 投與되었다⁶⁻³⁰⁾. 이러한 藥物의 投與方法은 現代 蘇生術에서는 心臟運動과 血液循環의 維持, 그리고 呼吸維持의 次元에서 藥物의 投與는 靜脈注射의 方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自縊死와 溺水死에 應用된 藥物의 氣味, 歸經, 效能은 표1과 같다.

藥物의 性味는 性은 대부분 溫하나 때로는 熱하고 味는 辛한 것이 많았다. 또한 性寒味苦(藍澱), 性平味鹹(鷄冠血), 性涼味苦(鷄屎白)한 性味를 가진 藥物도 있었고 有毒 또는 小毒한 藥物로는 皂莢, 半夏, 肉桂, 酒가 있었다.

藥物의 歸京은 肝, 心, 脾, 肺, 腎, 三焦, 膀胱經으로 特定한 하나의 歸經으로 一致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歸經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五臟六腑로 歸京하였다. 그 중에서 歸經이 手少陰心經과 手太陰肺經이 있는 藥物로 皂莢, 半夏, 細辛, 藍青, 鷄屎白, 葱葉, 肉桂, 生薑으로 많았다.

藥物의 效能은 祛風祛濕 또는 祛痰하는 藥物이

많았고, 副次的으로 解毒(皂莢, 雞屎白, 藍汁, 葱葉), 開竅 또는 利竅(皂莢, 細辛), 利小便 또는 利水(細辛, 鷄屎白), 活血通絡 또는 通經(鷄冠血, 肉桂)하는 效能도 있었다⁴⁰⁻⁴²⁾.

湯液本草⁴⁵⁾의 <製方之法>에서는 “凡此之味 各有所能 然辛能散結潤燥 苦能燥濕堅軟 鹹能軟堅 酸能收緩收散 甘能緩急 淡能利竅” 라고 하였으며, <氣味生成流布>에서는 “陽爲氣 陰爲味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於味 陰味出下竅 陽氣出上竅 味厚者爲陰 薄爲陰中之陽 厚則泄 薄則通 氣厚者爲陽 薄爲陽中之陰 薄則發泄 厚則發熱”라고 하였다. 신⁴¹⁾, 김⁴²⁾, 이⁴⁴⁾ 등은 溫藥은 萬物이 始生하는 氣인 春에 應하여 發散을 위주로 하며 熱藥보다 弱한 作用을 하며, 辛味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들어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확대시키면서 呼吸을 내쉬어 급히 發散시키려고 한다. 특히 상체에 熱感을 느끼며(升), 땀이 비껴 나고(汗散), 呼吸이 深厚해진다(肺臟). <素問藏氣法時論>에서는 “五味之一屬金屬肺辛味者入肺 以養肺氣”⁴²⁾라고 하였으며, 辛味性 藥物은 肺臟과 관계하여 血液循環을 돕고 旺盛케 하며 風寒을 升散하여 胃液의 分泌를 促進시켜 食慾不振에 많이 복용하며, 辛味性 藥을 많이 복용하면 呼吸이 많아지므로, 주로 散結, 發散, 抽風, 橫行, 利竅 潤燥, 健胃 등의 작용이 있다⁴⁴⁾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自縊死와 溺水死에 사용된 藥物의 氣味가 대부분이 性溫하고 味辛한 것이며, 이러한 性溫味辛의 氣味로서 肺臟과 心臟에 관계하여 血液循環을 활발히 하고 呼吸을 強化시켜 利竅發散과 함께 祛痰通經의 效能으로써 應急狀況에서의 心肺蘇生術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위의 약물이 應用된 것으로 사료된다.

自縊死와 溺水死에 投與된 藥物의 種類와 投與方法은 다음과 같다.

吹法은 兩鼻中이나 兩耳의 안으로 藥物을 胡豆大 등의 크기로 만들어 불어넣는 方法으로 自縊死에서는 皂莢, 細辛, 梁上塵, 葱白, 半夏 등이 사용되고 溺水死에서는 皂莢 등이 사용되었다.

灌法은 약물을 汁이나 液體상태로 만들어 口中이

나 鼻腔으로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서 흘러 들어가게 하는 方法으로 自縊死에서는 鷄屎白, 藍汁, 蘇合香元, 鴨血 등이 사용되고 溺水死에서는 鴨血, 酒, 酢, 松子油, 蘇合香元, 皂角 등이 사용되었다.

滴法은 雞冠血 등의 生血을 口中으로 點滴으로 천천히 떨어뜨리는 方法으로 男雌女雄의 구별이 있었으며 自縊死에서만 雞冠血, 藍汁이 사용되었다.

搐鼻法은 藥物로 때로는 가루를 내어서 鼻를 막고 아프게 하는 方法으로 自縊死에서는 半夏, 皂角이 溺水死에서는 半仙丸이 사용되었다.

擦法은 藥物로 口唇이나 口腔 또는 齒牙를 비비어 마찰시키는 方法으로 自縊死에서는 蘇合香丸이 사용되고 溺水死에서는 老薑과 蘇合香元 등이 사용되었다.

綿裹法은 藥物을 綿으로 싸서 口腔과 咽喉部에 넣는 方法이며, 自縊死에서는 皂角末이 사용되고 溺水死에서는 皂莢, 皂角이 사용되었다.

喉下 및 口內法은 藥물을 口腔과 咽喉部에 넣는 方法을 말한다. 自縊死에서는 桂心湯, 鷄血, 松子油가 사용되고 溺水死에서는 皂莢, 松子油, 皂角末 등이 사용되었다.

藥物投與時 藥物의 劑型은 대부분이 粉末의 가루상태나 液體상태로 投與되었다. 皂莢, 半夏, 細辛 등은 粉末상태나 切片된 상태로 투여되었고, 鷄屎白, 鷄血, 梁上塵, 酒, 醋, 鷄冠血, 藍汁, 松子油, 桂心湯 등은 液體상태로 투여되었다.

自縊者와 溺水者에 사용된 藥物과 藥物投與方法은 表2와 表3과 같다.

藥物投與方法으로 吹法, 灌法, 滴法, 搐鼻法 擦法, 綿裹法, 喉下 및 口內法이 사용되었는데, 鼻腔, 口腔, 口唇, 咽喉의 消化管投與方法이 많았고, 自縊者는 吹法과 灌法이, 溺水者는 灌法이 많이 應用되었고, 溺水者에서는 適法의 方法을 사용하지 않았다. 灌法에서 酒의 使用이 많았다. 이는 吹法은 鼻腔의 鼻粘膜을 통해서 안전하고 대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목적, 灌法은 구강을 통한 消化管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舌下粘膜에 작용하여 흡수력이 높아지는 목적과 性溫味辛發散祛痰利竅의 效能으로 精神을 覺醒시키고 心肺循環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

으로 사료된다³⁵⁻³⁸).

總括하면 藥物의 性味는 性溫味辛하며 藥物의 歸京은 전체적으로 五臟六腑로 歸京하면서 手少陰心經과 手太陰肺經에 入하는 藥물이 많았다. 藥物의 效能은 祛風祛濕 또는 祛痰하는 藥物이 많았고, 粉末의 가루상태나 液體상태로 投與되었고, 藥物投與方法으로는 吹法, 灌法, 滴法, 搐鼻法 擦法, 綿裹法, 喉下 및 口內法이 使用되었는데, 鼻腔과 消化管投與方法이 많았고, 自縊者는 吹法, 灌法이 溺水者는 灌法이 많이 應用되었다.

傳統的인 韓醫學에서의 急症에 대한 認識은 오래전부터 形成되어 認識·發展되어는 왔지만 그에 相應하는 投與方法 및 劑型의 未備로 因하여 發展에 많은 制約을 받아 왔으며, 踏襲의 수준에 머물러왔다. 실제로 법적인 많은 제약도 따르고 있다.

急症患者의 境遇는 그 특수상 무엇보다도 “急則治標”의 概念으로 症狀를 안정시키면서 가능한 모든 投藥方法을 動員하여 治療하는 것이 重要하며, 또한 藥物投與의 安定性이 중요시 된다. 韓醫學에서는 消化管投與 中 經口投與方法이 많이 이루어 졌으나 그 問題點과 限界性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가능한 형태의 모든 藥物의 劑型과 投藥方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消化管投與의 方法이외에도 局所의 粘膜(舌下, 皮膚)에 藥物을 바르는 方法이나 氣滯狀態 또는 揮發性이 있는 藥物을 呼吸器系統을 통하여 噴霧의 형태로 吸入케하여 投與하는 方法, 直腸管을 통한 坐藥이나 液體藥物을 投藥하는 方法 등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備置藥의 使用은 葛洪이 ‘自常和合貯此之備 最先于衣食耳’라고 하여 그 重要性을 最初로 言及하였다³⁵⁻³⁷). 備置藥의 活用을 통하여 既存 劑型과 投藥方法의 短點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應急患者의 發生시 유용한 藥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思料된다.

藥物의 投與方法의 改善과 多樣한 方法을 통하여 急症의 治療率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 西洋醫學과 中國에서의 注射劑에 대한 積極的인 연구와 使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關聯制度의 改善과 많은 臨床 및 實驗的 接近이 이루어야 한다고 思料된다^{35-39,43}).

표1 自縊死와 溺水死에 사용된 藥物의 氣味, 歸經, 效能.

藥物	性味	效能	歸經
皂莢	性溫味辛無毒(中) 性溫少毒味辛鹹(申) 性溫有小毒味辛(本) 氣溫味辛鹹有小毒(湯)	祛風痰除濕毒(中) 利九竅消痰涎破堅積下垢穢 治中風口噤癱瘓癰疽(申) 祛痰開竅散結消腫治中風閉竅昏迷不醒 癲癇痰盛開竅不通喉痺頑痰喘咳咯痰大 便秘結(本)	肺胃肝大腸(申) 肺大腸(本) 厥陰經藥(湯)
半夏	性溫味辛有毒(中) 性平無毒味大辛(申) 性溫有毒味辛(本) 氣微寒味辛平苦而辛辛 厚苦輕陽中陰也生微寒熱 溫有毒(湯)	祛濕祛痰下氣止嘔(中) 和胃健脾消積除濕順氣(申) 燥濕化痰降逆止嘔消痞散結治客痰喘咳 痰飲眩暈風痰眩暈厥厥頭痛嘔吐反胃胸 脘痞悶梅核氣(本)	脾胃(中) 脾胃膽心肺大腸(申) 脾胃肺(本) 入足陽明經太陰經少陽經(湯)
細辛	性溫味辛(中) 性溫味辛(申) 性溫無毒味辛(本) 氣溫味大辛純陽 性溫 氣厚於味陽也 無毒(湯)	祛風寒利小便開竅(中) 治搜風散寒發寒祛痰溫中下氣開竅利水 道開胸中積滯治百節拘攣頭痛風濕痞痛 (申) 祛痰散寒通竅止痛溫肺和飲治感冒風寒 頭痛牙痛鼻塞鼻淵風濕痺痛痰飲喘咳(本)	肺腎(中) 肺腎心小腸(申) 心肺腎(本) 手少陰引經之藥(湯)
藍青	性寒味苦辛無毒(中)	解熱解毒(中)	手少陰心經(中)
雞屎白	性涼味苦(中)	利水泄熱祛風解毒(中)	心肝(中)
鷄冠血	味鹹性平(中)	祛風活血通絡(中)	膀胱經(中)
葱葉	性溫味辛(中) 氣溫味辛無毒(湯)	祛風發寒解毒消腫(中)	入手太陰經足陽明經(湯)
肉桂	性香大熱少毒 味甘辛(申) 性熱無毒味辛甘(本) 氣熱味甘辛有小毒(湯)	溫中平肝益肺助陽通經強筋骨利血脈治 腰痛心腹痛(申) 補元陽暖脾胃除積冷通血脈治命門火衰 肢冷脈微亡陽虛脫腹痛泄瀉寒疝奔豚腰 膝冷痛經閉癥瘕陰疽流注虛陽浮越上熱 下寒(本)	脾心腎肝命門(申) 腎脾膀胱(本) 入手少陰經(湯)
生薑	性溫味辛(申) 性溫無毒味辛(本) 氣熱味大辛辛大熱味薄 氣厚陽中之陽也辛溫無毒 (湯)	散風寒止嘔逆治痰喘腹痛祛口臭下氣殺 蟲(申) 解表散寒溫中止嘔化痰止咳治外感風寒 胃寒嘔吐脹滿泄瀉寒痰咳嗽喘咳(本)	肺脾胃(本)
酒		氣大熱 味苦甘辛 有毒	
酢(醋)		氣溫 味酸 無毒	
松子油		治疥瘡久遠不癒(中)	

* (中): 中藥大辭典, (申): 申氏本草學, (本): 本草學, (湯): 湯液本草

표2. 自縊者에 投與된 藥物과 藥物投與方法

投與方法	藥物과 出典	
吹法	皂莢(末)	備急千金要方, 聖濟總錄, 本草綱目, 東醫寶鑑, 醫宗損益
	半夏(末)	外臺秘要, 丹溪心法附餘, 本草綱目, 東醫寶鑑, 醫宗損益
	梁上塵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 聖濟總錄, 本草綱目, 東醫寶鑑, 奇效良方
	細辛	東醫寶鑑, 醫宗損益
	기타	皂莢細辛(備急千金要方) 皂莢末葱葉, (外臺秘要) 皂莢 細辛 各五分(鄉藥集成方) 皂莢細辛(奇效良方)
灌法	藍靑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 聖濟總錄, 本草綱目, 證治準繩,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醫宗損益, 奇效良方, 醫學綱目
	雞屎白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 聖濟總錄, 萬病回春, 本草綱目, 證治準繩,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醫宗損益, 奇效良方, 醫學綱目
	蘇合香丸	證治準繩
	기타	鴨血(醫學入門) 木香細辛湯(證治準繩) 肉桂心二三錢煎湯灌之(醫學心悟)
滴法	鷄冠血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 醫學入門, 本草綱目, 證治準繩, 醫方集解,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醫宗損益, 醫學綱目
	藍汁	萬病回春
搐鼻法	半夏(半仙丸)	證治準繩, 醫學心悟
	皂角(末)	證治準繩, 醫方集解
擦法	蘇合香丸(醫學入門)	
綿裹法	皂角末 : 醫學入門, 醫宗損益, 奇效良方	
喉下	華佗 救急死神方(華陀神醫秘典) 鷄血(備急千金要方)	
口內法	桂心湯	金匱要略, 外臺秘要, 聖濟總錄, 三因方, 仁齋直指方, 得效方, 丹溪心法附餘, 證治準繩, 醫宗金鑑, 醫學綱目
	松子油	聖濟總錄, 醫宗損益

卅3. 溺水者에 使用된 藥物과 藥物投與方法

投與方法	藥物과 出典	
吹法	皂莢(末)	聖濟總錄, 本草綱目
	搐鼻散	醫學心悟
灌法	酒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鄉藥集成方, 奇效良方
	醋	備急千金要方, 聖濟總錄, 鄉藥集成方, 奇效良方, 東醫寶鑑
	蘇合香元	東醫寶鑑, 醫宗損益
	기타	松子油, 皂角(證治準繩) 生薑汁(醫學心悟) 鴨血, 萬病解毒丹(東醫寶鑑)
搐鼻法	半仙丸	醫學心悟
擦法	老薑	丹溪心法附餘, 本草綱目, 醫方集解, 鄉藥集成方
	蘇合香圓之類	丹溪心法附餘
綿裹法	皂莢(末)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皂角(末)	得效方, 萬病回春, 證治準繩, 醫方集解, 東醫寶鑑, 醫學綱目
喉下	抄鹽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皂莢	聖濟總錄
口內法	松子油	鄉藥集成方
	皂角末	奇效良方
기타	華佗救溺死神方 以籠中灰布之 …… 然後以生半夏丸 納鼻孔中 必取嚏而蘇 急以人蔘三錢 茯苓 一兩 白朮 薏仁 車前各五錢 肉桂 一錢 煎湯半盞灌之 無不生全也	

IV. 結 論

自縊死와 溺水死에 使用된 藥物分析 및 投與方法에 관한 文獻의 考察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自縊死와 溺水死에 使用된 藥物로는 桂心, 細辛, 皂莢, 葱葉, 半夏, 肉桂 등이 사용되었다.
2. 自縊死와 溺水死에 대한 藥物의 性味는 性은 溫 또는 熱하고 味는 辛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3. 自縊死와 溺水死에 대한 藥物의 歸經은 五臟六腑에 歸經하였고 手少陰心經과 手太陰肺經에 주로 入하였다.
4. 自縊死와 溺水死에 대한 藥物의 效能은 祛風祛濕 또는 祛痰하면서 開竅, 解毒, 利小便하는 藥物이 많았다.
5. 自縊死와 溺水死에 대한 藥物投與 方法으로는 自縊死에서는 吹法과 灌法이, 溺水死에서는 灌法이 많이 應用되었다.

參 考 文 獻

1. 이은옥 외 : 응급의학총론, 서울, 신광출판사, pp.137,138, 1995.
2. 임경수·황성오 : 전문의상처치술, 서울, 군자출판사, p.1, 1995.
3. 박희곤 : 응급구조학 개론, 서울, 대학서림, pp.11-21, 1995.
4. 醫學教育研修院 : 應急處置,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3-30, 1987.
5. 醫學教育研修院 :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995-972, 1987.
6. 張 機 :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出版社, pp.704-707, 1998.
7. 葛 洪 : 葛洪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 1996.
8. 華 陀 : 華陀神醫秘傳, 서울, 東醫補, pp.333-334, 1958.
9. 巢元方 :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676-677, 1983
10.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46-447, 1982.
11. 王 燾 : 外臺秘要, 서울, 成輔社, pp.739-741, 742-743, 1975.
12. 太宗命 撰 :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p.1783, 1979.
13. 趙 佶 :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434-2435, 1987.
14. 陳 言 : 陳無擇三因方,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卷十) pp.6-8, 1977.
15. 楊士瀛 : 仁齋直指方, 福建省, 福建科學技術出版社, p.726, 1989.
16. 危亦林 :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517-518, 1997.
17. 方 廣 :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851-852, 1989.
18. 李 梴 : 國譯編註 醫學入門(VI), 서울, 南山堂, pp.460-461, 1985.
19. 龔廷賢 : 增補萬病回春, 서울, 행림출판사, pp.223-224, 1986.
20. 李時珍 :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48, 1982.
21. 王肯堂 : 證治準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6-17, 1995.
22. 汪 昂 : 醫方集解, 서울, 大星文化社, pp.433-434, 1989.
23. 張 璠 :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504, 1990
24. 程國彭 : 醫學心悟, 서울, 成輔社, pp.227-228, 1970
25. 太醫院御醫 : 醫宗金鑑, 서울, 翰林社, pp.461-463, 1976.
26. 辛民教 共譯 : 國譯鄉藥集成方(中), 서울, 永林社, pp.1175-1177, 1989.
27. 許 浚 : 東醫寶鑑(雜病 卷9-11), 서울, 大星文化社, pp.102-103, 1981.
28. 黃度淵 : 醫宗損益(下), 서울, 여강출판사, p.60, 1993.
29. 方 賢 : 奇效良方, 香港, 商務印書館, pp.1666-1669, 1977.
30. 樓全善 : 醫學綱目, 台南, 台南北一出版社, pp.108-109, 1973.
31. 박희곤 : 응급구조와 소생술, 서울, 대학서림, pp.13-49, 1995.
32. 이방헌 : 심폐소생술과 그 보급대책, 대한의학협회지, 29(6):605-613, 1986.
33. 김형목 역 : 응급처치 매뉴얼, 서울, 도서출판 고려의학, pp.24-38, 1995.
34. 황정연 : 기본외상소생술, 서울, 군자출판사, pp.42-47, 1995.
35. 黃致元·卞 一 : 內科急症의 應急處置 및 投藥方法에 關한 文獻的 考察, 惠和醫學, 1(3):16-45, 1994.
36. 이은옥 외 : 응급처치의 원리와 실제, 서울, 수문사, pp.232-241, 1990.
37. 홍사석 : 이우주의 약리한 강의, 서울, 선일문화사, pp.38-42, 1990.
38. 黃星垣 氏 : 中醫急症大成,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48, 1987.

39. 徐潤 등 : 中醫內科急診手冊, 北京, 北京醫科大學中國協和醫科大學聯合出版社, p.25, 1996.
40. 강소신의학원 : 증약대사전, 서울, 정담, pp. 253-256, 285-286, 898, 899, 1960-1971, 3088-3097, 3222, 4940-4942, 4967-4970, 5548, 1998.
41. 신길구 : 신씨본초학, 서울, 수문사, pp. 20-22, 39-58, 238-240, 242-245, 404-406, 697-699, 1987.
42. 김선희 외 : 본초학, 서울, 영림사, pp. 135-137, 336, 337, 448, 449, 454, 455, 1991.
43. 배경일 : 自縊死와 溺水死에 나타난 蘇生術에 대한 文獻的 考察, 惠和醫學, 해화의학, pp. 134-154, 2001.
44. 이상인 외 : 본초학, 서울, 수서원, pp. 39-41, 1971.
45. 王好古 : 國譯湯液本草, 서울, 대성문화사, pp.45-48, 69-78, 104-106, 175-177, 237-343, 286-289, 326, 338, 339, 1996.